

서재응·윤석민·김진우 10승 도전



토종 선발투수 3총사 나란히 8승 기록
KIA, 삼성·SK·롯데 상대 막판 스피트

프로야구 전망대

2012 프로야구 중간순위 (9월 24일 현재)

Table with 7 columns: 팀, 경기수, 승, 패, 무승부, 승률, 게임차, 연승. Rows include KIA, SK, 롯데, 두산, 넥센, LG, 한화.

'호랑이 군단'이 삼성·SK 그리고 롯데를 상대로 마지막 스피트에 나선다.

KIA는 지난 23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생애 첫 완봉승을 거둔 서재응을 앞세워 4연패에서 탈출했다. 짜릿한 1승을 더했지만 KIA는 55승6무2패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6위에 머물고 있다.

KIA는 25·26일 대구원정을 다녀온 뒤 28·29일 안방에서 SK를 상대한다. 그리고 군산으로 넘어가 30일부터 롯데와 3연전을 치른다.

4강 싸움은 멀어졌지만 그라운드외 기록은 계속된다.

10승을 향한 토종 선발진의 도전에 눈길이 쏠린다. 현재 KIA에서 10승을 넘긴 투수는 앤서니(11승)가 유일하다. 36이닝 무실점 행진중인 서재응이 간신히 1승을 더하면서 현재 윤석민과 김진우 세 명의 토종 선발이 8승을 기록하고 있다.

계속된 불운에 7승에 머물고 있는 소사를 제외하고 세 투수에게는 두 자릿수 승수 가능성이 남아있다.

2011시즌 투수 4관왕에 빛나는 윤석민은 구위 저하와 함께 올 시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10승은 윤석민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제 2의 전성기를 알린 김진우에게도 10승은 욕심 나는 고지다. 데뷔 첫째 12승을 찍었던 김진우는 2003년(11승)과 2006년(10승)을 제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올 시즌 10승은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 방향을 끝내고 비로소 선발로 자리를 잡은 만큼 확실한 부활을 알리고 싶다.

김진우는 앞선 삼성과의 등판에서 7.1이닝 동안 131개의 공을 던지며 올 시즌 최다투구수를 기록했다. 타선의 침묵으로 2실점의 호투에도 패전투수가 됐

만 김진우의 후반 페이스는 거침없다. 계속된 불운에 아쉬움을 삼켰던 서재응은 23일 승리로 가져가던 10승의 희망을 되살렸다. 연속 무실점 기록도 남아있다. 서재응은 최근 5번의 선발 등판에서 35이닝 무실점 행진을 펼쳤다. 선동열 감독이 보유하고 있는 선발 등판 최다 무실점 기록(37이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타석에서는 '부상병' 이용규와 김원섭의 자리 지키기가 진행된다.

극심한 투고타저의 한해를 보낸 KIA에서 유일하게 이용규가 타격부진 타이를 싸움을 벌이고 있다. 50개의 도루로 넥센 서건창(47개)의 추격을 받고 있는 이용규는 득점에서는 삼성 이승엽과 82개로 공동 1위에 올라있다. 박병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지만 맹장염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으면서 이용규의 스피드도 제동이 걸렸다. 이번 주 난적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용규의 발에 관심이 쏠린다.

KIA 유일의 3할 타자 김원섭도 만성 간염에 발목이 잡혔다. 올 시즌 풀타임을 소화하며 만점 활약을 하고 있지만 간수치가 상승하면서 지난 20일 삼성과의 경기를 끝으로 벤치를 지키고 있다.

두 자릿수 홈런을 위한 나지완(9개)의 한방도 관심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체고 전상용 근대5종 세계유소년선수권 銀

광주체고의 전상용이 근대5종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남자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상용은 24일 헝가리 타타에서 끝난 2012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남자계주에서 전운태(서울체고), 채동민(전북체고)과

4968점을 합작하며 독일(4992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근대5종 계주는 팀 별로 3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뤄 펜싱, 수영, 승마, 복합경기(사격+육상) 종목에 함께 출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000만달러 사나이' 우즈도 매길로이도 아닌 스니데커



미국의 브랜트 스니데커가 24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투어챔피언십 우승... PGA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역전승

브랜트 스니데커(미국)가 1000만달러의 상금이 걸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의 최종 승자가 됐다.

스니데커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장(파70·7154야드)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챔피언십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를 적어내는 실수를 했지만 버디 5개로 만회, 2언더파 68타를 쳤다.

합계 10언더파 270타를 쏜 스니데커는 저스틴 로즈(잉글랜드·7언더파 273타)를 3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플레이오프 3차전까지 페덱스컵 랭킹 5위였던 스니데커는 이번 우승으로 2500점을 보낸 합계 4100점을 획득, 강력한 우승 후보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제치고 1위로 우뚝 섰다.

플레이오프에서 두차례나 우승한 매길로이는 투어챔피언십에서 공동 10위(1언더파 279타)에 머물러 페덱스컵 랭킹 2위(2827점)에 그쳤다. 스니데커는 투어챔피언십 우승 상금 144만달러와 함께 플레이오프 우승 상금 1000만달러를 받는 '잭팟'을 터뜨렸다.

2차차 공동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스니데커는 3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6번홀(파3)에서 티샷을 워터해저드에 빠뜨리는 바람에 더블보기를 적어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우즈나 매길로이도 울고 갈 귀신 같은 솜씨의 퍼팅이 있었다.

현재 스니데커는 거리별 성공률로 접수를 매기는 퍼트 순위에서 0.860점으로 1위에 올라 있다.

이번주에도 내내 2.5m 이내 퍼팅을 한 개도 놓치지 않았다. 3m가 넘는 것도 12개를

성공시켰다. 이날도 퍼터를 든 것은 단 25차례뿐이다.

우승의 결정타는 17번홀(파4)에서 나왔다. 티샷을 깊은 러프에 빠뜨린 스니데커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저드로 둘러싸인 그린을 직접 노렸다.

두번홀사이 해저드와 그린 경계에 간신히 걸려 안도의 한숨을 쉰 스니데커는 홀까지 8m를 남기고 웨지로 친 어프로치샷을 그대로 집어넣어 버디를 냈었다.

타이거 우즈(미국)도 페덱스컵 우승 경쟁에 가세했지만 마지막날 2타를 잃고 공동 8위(2언더파 278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최종 페덱스컵 랭킹은 3위(2663점)다.

한국계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최종전에 진출한 존 허(22)는 29위(14오버파 294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LPGA 나비스타 클래식

허미정·강혜지 공동 3위

허미정(23·코오롱)과 강혜지(22)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나비스타 클래식(총상금 130만달러)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허미정은 24일 미국 앨라배마주 프래트빌 RTT 골프트레이일(파72·646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잡고 보기 3개를 내 4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쏜 허미정은 공동 3위에 올랐다. 강혜지는 이날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기록, 허미정·안젤라 스탠퍼드(미국)와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허미정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시즌 대 대회 상위 3위 내에 든 선수들이 출전하는 결산 대회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다.

3라운드에 단독 선두로 올라선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이날 버디를 4개 잡고 보기를 1개로 막아 3타를 줄이며 함께 18언더파 270타로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F1 싱가포르 베텔 우승

F1 싱가포르대회에서 세바스찬 베텔(레드불)이 우승을 차지했다. 베텔은 지난 23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시가지 경주장에서 열린 이 대회 결선에서 5.073km의 경주장 59바퀴를 2시간00분26초144에 달러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예선 3위를 기록한 베텔은 예선 1위의 루이스 해밀턴(맥라렌)이 중도 탈락하면서 선두로 나섰고, 이후 여유 있는 경주를 펼치며 올 들어 두 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 2위는 젠슨 버튼(맥라렌)이 페텔에 8.959초 뒤진 기록으로 차지했다. 2년 연속 싱가포르대회 우승 트로피를 든 베텔은 우승점수 25점을 추가하며 함께 165점으로 종합 순위 2위로 올라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즈 vs 매길로이 황제대결 뜨거웠다

막 내린 2012 PGA 투어... 최경주 부진 아쉬워

24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챔피언십을 끝으로 2012시즌 PGA 투어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10월 초부터 '가을 시리즈'라고 하는 대회가 4개 열리지만 상금 랭킹 중·하위권 선수들이 다음 시즌 출전권 확보를 위해 벌이는 경쟁에 초점이 맞춰지는 대회로 아무래도 팬들의 관심이 덜하다.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페덱스컵 우승은 브랜트 스니데커(미국)에게 돌아갔지만 시즌 전체로 보면 골프 '신·구 황제'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타이거 우즈(미국)가 주인공이었던 한 해였다.

세계 랭킹 1위 매길로이는 이번 시즌을 통해 '차세대 황제'로의 입지를 확실히 굳

혔다. 3월 혼다클래식을 시작으로 8월 메이저대회인 PGA챔피언십, 9월에는 플레이오프 2.3차전인 도이체방크 챔피언십과 BMW챔피언십을 휩쓸어 시즌 4승으로 최다승 기록했다.

프로 골프 선수의 실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흔히 사용되는 상금과 평균 타수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지켜 사실상 이번 시즌 진정한 챔피언은 매길로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즈도 '부활의 샷'을 날렸다. 2009년 자택 근처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낸 뒤 검사를 수 없이 성추문이 불거진 우즈는 2010년과 2011년을 연달아 우승 없이 보냈다. 2011년 12월 이벤트 대회인 세브론 월드클린지에서 우승하며 부활을 예고한



우즈

매길로이

우즈는 올해 3승을 거두며 살아난 모습을 보였다. 정규대회까지 페덱스컵 포인트 1위로 플레이오프에 나오기도 플레이오프 대회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역전을 허용한 부분은 예전 황제의 위용에 비해 아쉬움이 남지만 바닥을 헤매던 최근 2년간 성적을 떠올리면 그래도 웃음을 되찾을 만하다.

'신·구 황제'의 권력 이양기에 자리를 지키려는 우즈와 새로운 황제가 되려는 매길로이의 샷 대결이 다음 시즌에도 전 세계 골프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반면 최경주(42·SK텔레콤)는 21차례 대회에 출전했지만 10위 안에 든 것이 두 차례뿐일 정도로 아쉬운 한 해를 보냈다.

/연합뉴스